

圖書館人이 본

大學生과 讀書

鄭 駢 謨

(中央大學校圖書館學科)

1

가을이되면 밤이 길어지고 日氣도 차분해져서 옛부터 燈火可親의 季節이라하여 밤에 글 읽기를 권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讀書週間을 가을에 둔것도 그러한 연유에서 일 것이다. 무더운 여름에는 아무리 시원한 場所에서도 冊을 들면 지루하고 따분한것이 事實이고 가을밤에는 마음에 드는 冊한권을 들면 時間가는 줄을도르게 되는것도 事實이다. 그러고 보면 讀書는 確實히 季節을 타는 모양이다. 그러나 識者들의 讀書는 四時節 變함없이 繼續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讀書의 計劃을 세워야하고 讀書에 관한 目的意識을 뚜렷이 할 必要가 있다.

2

讀書란 分明히 冊을 읽는 것이다. 그러면 冊이란 무엇이 무엇때문에 읽는가. 美國의 圖書館學者인 Haines는 “圖書는 知性的 그릇이라”고 했다. 人類의 思想, 感情, 情緒, 行動, 經驗等 人間의 모든 知的인 活動의 記錄이 冊속에 면밀히 실려서 간직되고 있는 것이다. 偉대한 宗教的著書속에는 偉대한 人類愛의 精神과 아름다운 世界와 宇宙의 眞理가 간직되어 있으며, 훌륭한 哲學的著書속에는 슬기롭고 偉대한 思想의 結晶이 간직되어 있으며, 眞實한 科學書에는 自然과 宇宙에 관한 法則과 그 調和와 神秘가 記錄되어 있으며, 훌륭한 文學的著書속에는 아름다운 人間의 꿈과 思想과 感情과 情緒와 眞實한 人間的 經驗이 숨겨져 있으며, 健全한 歷史的 著書속에는 數千數萬에 걸친 人類의 行動과 經驗이 生生하게 展開되어있는 것이다.

우리 人類는 일지거 意思의 傳達手段으로서 記號와 文字를 發明해서 記錄하기 시작한 以來, 점차 冊이라고 하는 媒介物을 마련하고 이 冊이라는 그릇에 이와 같은 人類의 모든 業績을 담아서 當代 또는 後世에 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같이 過去의 人類의 모든 業績이 集約된 圖書를 통해서 우리는 時代와 場所의 制約이 없이 人類의 過去와 現在의 모든것을 알수있게된 것이다. 또한 우리

가 이러한 人類의 業績을 안다고하는 것은 自然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讀書라고하는 過程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溫古知新의 過程으로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創造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는 冊을 통해서 우리의 直前까지의 文化를 물려받고 또다시 새로운 創造를 하고 文化를 더욱 擴充해서 追加蓄積하여 後代에 繼承해 나아가는 것이다. 즉 冊은 이러한 知的文化的 傳授器具라고도 할수있다.

이러한 文化的 傳授와 創造의 過程을 學問이라고 한다면 讀書의 本然의 目的은 學問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大學은 學問의 殿堂이요 大學生은 學問의 使徒라고 할수있으니 大學生은 學問과 讀書를 떠나서 생각할수없다.

3

그런데 近來에 흔히 요즈음 大學生들은 讀書를 잘안는다고 한다. 이말은 分明히 矛盾性을 內包하고 있다. 讀書란 大學生들에게는 職業이다. 그들은 讀書를 한다고 하는 意識을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讀書의 行爲는 언제나 하고있는 것이다. 그들의 教科에 屬하는 즉 學習을 위한 讀書는 그들의 不可避한 義務이므로 그들이 讀書를 안는다는 것은 語不成說이다. 그러나 그말이 內包하는 意味는 아마도 요즈음 大學生들은 그들의 教科過程以外에 그들 各者에게 알맞는 教養書籍을 읽지 않는다는 意味로 解釋하는 것이 適切할것같다.

筆者의 見解로는 그들 各者에게 알맞는 讀書計劃이나 方針이 세워져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같다. 如何든 讀書의 必要性은 누구나가 痛感하고 있는 事實이니 再論할 必要도 없거나와 大學生 뿐만이 아니라 識者들은 누구나 基本的인 讀書計劃이 세워져야한다.

讀書의 第一의 必要條件은 選擇이며 適切한 選擇이 없이 興味本位나 流行을 좇아서 되는데로 읽는다면 차라리 읽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책의 選擇은 親舊나 배우자를 고르는 것과 같은 것이며 어떤 點으로 보면 그 以上으로 사람의 生涯에 影響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탕한 사람은 못된 病에 걸리며平生을 두고 고생하게 되는 것처럼, 닳치는 대로 읽는 그 冊이 不良한 冊이면 讀者의 靈性, 德性을 損傷하여平生을 두고 그것을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던 讀書는 즐거워야 하는데 眞實한 冊만으로는 재미가 없지 않으냐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 잠깐이고 얼마 안가서 그 재미를 알게 되면 벌써 通俗의인 것은 읽을 생각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通俗의인 讀書에 習慣이 되면 古典의인 讀書는 念頭에 두지 않으냐, 그와 반대로 훌륭한 冊을 읽으면 通俗의인 것은 읽을 맛이 없는 것이다. 그러던 圖書의 氾濫時代라고 하는 現代에 있어 수많은 圖書 가운데서 良書와 不良書를 어떻게 區別할 것이냐 더욱이 讀書의 經驗이 적은 사람은 各各의 冊을 읽기 전에 그 冊에 대하여 善惡을 判斷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혼자서는 그 判斷의 眞否를 區別할 수 없다. 그리하여 學識과 經驗이 많은 先輩들의 意見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現代는 많은 有能한 先輩들이 이미 選定한 良書가 많이 있으므로 圖書의 選擇에는 難點은 거의 없다. 다만 良書로 選定되었다고 해서 그 良書全部를 읽을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구태어 全部 읽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要는 그 良書들 가운데에서 自己에게 알맞는 適書를 擇해야 할 것이다.

適書를 選擇하는 方法은 各各의 趣味, 性格, 專攻等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므로 그에 따라서 讀書計劃을 수립해야 하며 그 計劃에 따라서 選擇方法도 決定해야 할 것이다.

大學生들의 讀書의 범위는 各各 專攻分野가 있으므로 거의 半以上이 決定되는 셈이다. 그리고 專攻科目은 各擔當教授의 推薦이 있을 것이므로 選擇問題도 決定되는 것이다. 그러나 專攻分野의 讀書는 讀書라기 보다는 學習이며 研究이다. 그것은 좋건 싫건 自己의 學問의 目的을 위해서 義務的으로 讀書를 하고 研究해야 할 것이다. 그러던 이 專攻以外的 讀書는 어떻게 하는가 問題이다.

大學生은 하나의 社會人으로서 自己專攻以外에 社會의 變遷이나 社會의 動態 또는 國際의 事情等을 항상 민감하게 認識해야 할 것이므로 “매스메디아”로서의 新聞, 雜誌, 라디오等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新聞이나 雜誌도 特殊한 사람 以外에는 여러가지 種類를 볼 必要는 없고 또한 한가지 新聞이나 雜誌도 처음부터 끝까지 通讀할 必要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新聞과 大衆雜誌는 國內의 主要한 것 一, 二種, 外國의 것 一, 二種이면 足하다. 그리고 新聞을 보는 方法도 各各의 專攻에 따라서 달라야 할 것이다. 大體로 社會科學分野를 專攻하는 사람은 政治面과 社會面을 거의 全

部 읽어야 할 것이고 其他는 趣味에 따라서 部分的으로 읽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人文科學分野를 專攻하는 사람은 特殊한 關心이 없는 限 政治와 社會面은 大略 重要的 部分만을 읽고 文化面을 主視할 것이다. 自然科學分野를 專攻하는 사람은 科學의인 記事만은 通讀을 해야 할 것이며 餘他는 常識과 趣味를 위해서 읽는 程度로 무방할 것이다. 特히 스포츠 記事나 퀴즈等은 누구나 趣味를 가진 사람만이 읽게 될 것이다. 大衆雜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말한 讀書는 專攻의 學問을 위한 것이며 時事의인 常識을 얻기 위한 것으로 讀書의 特殊한 面이라고 볼 수 있다. 一般的으로 讀書라고 할 때는 敎養書籍을 읽는 것을 意味한다.

4

그러던 敎養이란 무엇인가 事實上 그概念이 明確하지 않다. 그것은 獨逸語의 Bildung의 譯語이다. Bildung은 人間形成을 意味하는 것이다. 語源的으로는 人間의 自然 그대로의 狀態를 素材로 보고 그것을 最上의 것으로 發達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① 自然的 感性과 利己心에서 自己의 精神을 解放하는 것 ② 이보다 높은 目的을 위하여 自己의 모든 能力을 바르고 健全하게 肉體的, 精神的으로 展開하는 것 ③ 이러한 素材를 哲學的, 宗教의 人生觀에 依하여 自己 및 他人의 幸福을 위하여 修養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의 讀書의 方法은 精讀을 第一로 하며 여러가지 種類의 冊을 要하지 않는다. 도리어 될 수 있으면 數가 적은 편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種類의 書籍은 主로 東西洋의 古典으로서 聖經이나 佛經, 周易, 論語, 孟子, 中庸, platon의 哲學書等으로서 그 가운데 數種을 擇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讀書는 各各의 哲學을 樹立하는데 즉 宗教觀이나 人生觀 혹은 世界觀을 樹立하는데 基礎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傳統的인 讀書論으로서 現代의 讀書는 이러한 狀態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現代의 社會에서 生를 누리기 위해서 現在의 環境을 理解하고 또한 契機를 마련하여 行動하고자 하는 讀書를 생각할 수 있다. 賢者가 되기 위해서 敎養을 쌓는 것이 아니라 現在를 보다 잘 살기 위해서 또는 現在와 將來를 正確히 把握하기 위해서 讀書가 必要한 것이다. 個人만으로서의 問題가 解決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社會人으로서 社會에서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 相互間의 幸福을 社會에 어떻게 實現해야 할 것인가를 求하기 위해서 讀書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種類의 讀書는 大學生의 경우는 各各의 專攻分野에 屬하는 것으로서 通讀과 完全한 理解를 要한다.

5

또한 重要한 讀書은 娛樂와 教養을 겸한 讀書가 있다. 이것은 주로 文學作品이나 世界的偉人들의 傳記類 혹은 記行文等을 읽는 것을 意味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娛樂이란 官能的인 것이 아니라 知性的이며 感性的인 것을 意味한다.

그런데 大學生의 경우 文學作品은 文學을 專攻하는 사람만이 읽는 것이 아니냐고 反問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文學은 大衆的인 것으로 누구나가 읽는 것이다. 다만 그 讀書에 있어서 方法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한다. 文學徒는 文學을 一般大衆과 같이 娛樂와 教養을 위해서 읽는 同時에 文學에 있어서의 原理와 法則性을 또는 人間과의 關係를 研究하는 것이다. 文學以外 다른 分野를 專攻하는 大學生이 文學作品을 읽는 것은 娛樂와 教養 또는 趣味를 위해서 읽는 것도 重要하거나와 筆者는 이것이 各者의 自己專攻의 延長이 되게 해야한다는 意味에서 더욱 권유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文學作品을 全部 專攻分野의 延長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文學가운데는 各專攻分野에도 適切한것이 無限이 있을수 있다.

왜냐하면 文學以外的 學問은 人生의 어느 一面을 研究하는 것이나, 文學作品은 人生의 모든 여러가지 경우를 다룰 수 있는 特權이 있다. 例를들면 法學은 人生의 社會規範에 관해서 研究하는 것이며, 經濟學은 人生의 經濟的인 面을 研究하는 것이며, 自然科學과 技術科學은 自然을 對象으로 하여 그 法則을 研究해서 人類의 幸福을 위해서 利用하는 것이다. 그러나 文學作品은 社會的規範關係에 處한 人生이나 經濟的인 面에 있어서의 人生이나 科學的인 面에 있어서의 人生이나 또는 各科學과 人生과의 關係에 對해서도 作者의 意圖에 따라서 多樣하게 다룰수 있다. 더욱이나 眞實한 文學作品은 所謂 文學的手法에 依해서 그것이 喜劇의이건 悲劇의이건간에 우리의 感情과 情緒가 뒤엎히는 가운데 喜悅을 느끼면서 多樣하게 또는 眞實하게 人生을 경험하게 한다.

6

그러면 다시 讀書問題에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文學과 藝術 以外的 모든 學問은 주로 客觀的이며 法則性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學問(讀書)하는 過程에 있어서 안다(知)고 하는 기쁨과 發明한다고 하는 기쁨以外에 情緒的인 喜悅을 맛볼수없고 喜悅보다는 도리어 끊임없는 긴장을 要한다. 우리는 아무리 學問을 研究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말한 專攻分野의 긴장만을 要하는 딱딱한 讀書만을 항상 繼續할수없고 또한 教養을 위한 愼重한 讀書만을 언제나 持續할수는 없다. 우

리는 休息을 위해서 音樂이나 映畵를 감상하는 것처럼 때로는 혼자서 미소를 띠우면서 읽을수 있는 文學作品이 必要한 것이다.

그런데 法律을 專攻하는 學生이 訴訟이나 裁判關係를 테마로(部分的이나마)한 文學作品을 읽는다면 法律이 作用하는 客觀的인 事實과 法律에 關係되는 主觀的인 人生을 立體的으로 經驗하게 될것이다. 즉 그것은 그 專攻의 延長이며, 喜悅을 느끼면서 自己의 學問을 人生 그自體에 비추어보는 豊富하고 산 學問을 하는 것이 될것이니 理想的인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科學을 專攻하는 學生이 科學的인 事件을 테마로한 推理的인 小說이라도 읽는다면 이것도 역시 自己專攻의 延長이 될수있을 것이며 自己의 科學에 對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契機가될 可能性도 있을 것이니 理想的인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法律과 人生을 認識하게되는 것이며 또한 科學과 人生을 認識하는 것이 될것이다.

그리하여 筆者는 文學以外的 다른 分野를 專攻하는 사람은 世界的인 名作들 가운데서 自己의 專攻分野와 關聯있는 테마를 지닌 文學作品을 選擇해서 읽는 것이 大學生들의 教養과 娛樂를 겸한 讀書로서 가장 理想的인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種類의 讀書物가운데 또한가치 훌륭한 것이 있다. 그것은 傳記類의 讀書이다. 傳記도 文學에 있어서의 테마와 마찬가지로 各方面의 世界的인 偉人들의 傳記가 있다. 즉 世界的인 藝術家, 思想家, 文學家, 政治家, 科學者, 音樂家……等. 그리하여 이러한 各分野를 專攻하는 學生들에게는 그들에게 適切한 過去의 大家들과 아무런 制約도 없이 自由롭고 재미있게 對話를 할수있으니 自己의 專攻의 延長이며 廣範하고 立體的인 산 學問이 될 것이니 얼마나 理想的인가?

7

讀書의 時間과 方法은 아침일지기 가장 精神이 맑은 때에 教養書를 읽고 專攻科目은 주로 낮(大部分 學校에서 授業을 하게될 것이나)과 초저녁이 좋을 것이며 밤에는 以上에서 말한 文學作品이나 偉人들의 傳記類를 읽는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新聞은 아침저녁의 食事前後 잠시동안 볼수있고 大衆雜誌는 낮의 日課中에 틈이 있을때나 어떠한 時間을 기다릴때 또는 汽車通學을 하는 學生이면 車內에서 심심풀이로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結局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冊만을 읽는 冊버러지가 되라는 셈이 되고 말았다. 如何든 우리는 目的없이 無味한 時間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警戒하고 時間을 善用하므로써 健全하고 끊임없는 讀書生活을 이루어야만 한다.